

# 禪 사상, 더이상 '不立文字' 아니다

## 정통불교이론 연구서 출판 부쩍 늘어

산승들의 산문, 잡기, 외국저서의 번역물,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어렵고 딱딱한 경전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불교출판의 서가에 근래 들어 '禪'을 소개하는 각종 책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不立文字 教外別傳'으로 상징되는 禪宗의 이념에서 본다면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책들의 출판이 활기를 띤 것은 80년대 말부터. 장경각, 불일출판사 등 몇몇 불교서적 전문출판사에서 각종 형태의 禪書들을 기획, 출판하면서 비롯됐다. 여기에 고려원, 세계사, 김영사 등 일반서적 출판사들이 가세하면서 그 활기는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점에 선보이고 있는 이들 책들은 대체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옛 선승들의 어록과 그들의 생애와 사상을 규명한 연구서, 그리고 禪宗의 역사와 禪사상의 흐름을 고찰한 역사서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중 현재 가장 많이 출간되어 있는 것이 선승들의 어록으로, 대표적인 것이 장경각에서 펴낸 「선림고경총서」와 「성철스님법어집」을 들 수 있다. 87년 5월에 첫권을 낸 이 기획시리즈는 92년 12월까지 총 50여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현재 27권이 나와 있다. 「선림고경총서」에는 임계, 위산, 마조 등 대표적인 선승들의 어록을 꼼꼼한 번역과 교정을 거쳐 우리말로 풀어놓고 있으며, 「성철스님법어집」은 조계종 7대 종정을 지낸 성철 큰스님의 법어들을 담고 있다. '백련선서 간행회'를 따로 마련, 회원가입을 통해 이미 상당수의 고정독자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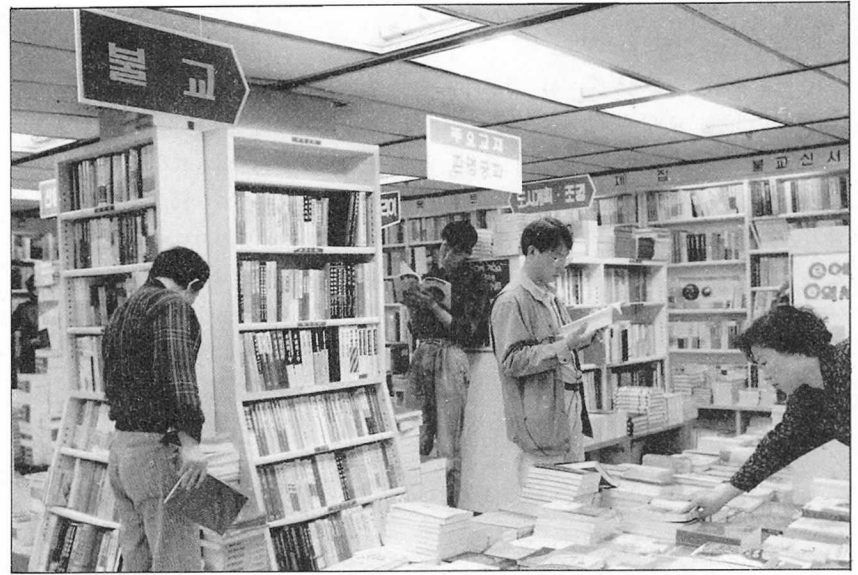
이밖에 보조국사 지눌의 「수심결」을 번역한

「마음 닦는 길」(강위건 역), 「효봉어록」(효봉문도회), 서산대사의 법어를 모은 「밖에서 찾지 말라」(법정 역) 등이 불일출판사에서 나왔다.

고려말기 불교를 대표하는 보우스님의 어록, 행장, 탐비명 등을 모은 「太古集」(雪栖 저 / 김달진 역주, 세계사), 조계종의 개조인 보조국사의 유문을 모은 「보조국사전서」(김달진 역주, 고려원), 중국선종의 시조인 마조도일선사의 어록을 번역한 「마조어록」(이리야 요시타카 저 / 박용길 역, 고려원) 등이 있다.

선사들의 생애와 사상을 밝힌 연구서로는 「달마」(야나기라 세이잔 저 / 김성환 역, 민족사)가 우선 눈에 띈다. 일본에서 출판된 '인류의 지적유산' (구담사, 1981) 시리즈의 16권째인 책을 번역한 것으로 선사상의 개조로 추앙받고 있는 보리달마의 전기와 사상을 가장 오래된 어록인 동화본 「이입사행론장권자」의 해설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밖에 같은 저자에 의해 씌어진 「임계록」(일지 역, 고려원)은 영원한 자유인으로서 자기확신을 외친 중국선종의 개조 임계의 생애와 사상을 원문과 함께 수록했다.

선종의 역사 또는 선사상의 흐름을 기술한 책으로는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정정보 저, 민족사)가 있다. 이 책은 초기 중국선종의 동향과 선사상들을 인도승 보리달마의 내조로부터 살피고 있다. 「초기선종사」(柳田聖小 저 / 양기봉 역, 김영사)는 수, 당 시대에 혁신불교를 부르짖던 이질집단에 의해 주창된 선종의 초창기의 모습을, 활동인맥과 상속법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서들은, 동양사상이나 정신주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불교 신도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불교출판협의회 김형균 이사는 "선서출간의 활기는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불교출판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때 우리 서점가를 잠식했던 각종 명상서적들에 의해 왜곡되었던 불교의 '선'의 진면모를 알린다는 측면에서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그는 이를 위해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를 위한 교계 및 학계의 관심이 높아져서 보다 많은 필자 및 역자가 나와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각 출판사들의 보다 진지하고 다양한 기획 및 편집형식의 개발이 뒤따

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명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불교의 선은 지혜로서 대상의 참모습을 직시함으로써 주객이 합일되는 부처의 세계를 깨닫게 되며 이 깨달음은 곧 무한한利他行과 연결되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선의 참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선이란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열중하며 자비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한 수행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목정배 교수(동국대)의 말을 선서를 찾는 독자들이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박남정 기자

교통사고  
해석학 I

현대인은 누구나 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책 한권으로,  
당신도 교통사고 조사·분석 전문가가 될 수 있다.

# 交通事故解析論

홍성민 편저

(교통안전 진흥공단 책임연구원)

대한민국 자가운전자들 위한 최고의 필독서

- 10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현장실무 그리고 연구!!
- 이제부터는 교통사고 조사분석도 하나의 학문입니다.

국판 366쪽  
해석사례사진 160컷  
하드카바, 양장  
값 12,500원

시간과문화, 이념의 장벽을 넘어 동방으로 동방으로..... 가자!  
동구·러시아의 歷史와 神學을 알아!

우리는 歷史라고 부르지만 그들에게는 神學입니다!

# 東方正教會

-역사와신학-

강태용신부 편역

로마교황청,  
가톨릭에 의한 동·서 유럽의 영적 통일선언!!

\* 東方正教會(Orthodox)는 그리스 가톨릭입니다.

국판 321쪽  
서적지  
값 5,000원



도서출판 **益山**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295-4 성진빌딩 302호

전화 : 268-7890